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제78차 세계보건총회 및 제157차 집행의사회 참석 및 의제 대응

☐ 과제명

- 2025년 WHO 주요 이슈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 출장기간

- 2025.05.25(일) ~ 2025.05.31(토)

☐ 출장국가(도시)

- 스위스(제네바)

☐ 출장자

- 보건복지부 최준호 국제협력관, 이현주 국제협력담당관, 김정열 사무관, 김다현 주무관, 질병관리청 박혜수 주무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진아 연구위원, 박나영 부연구위원

☐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05.25	스위스(제네바)	출국		국가 간 이동
05.26	스위스(제네바)	UN 유럽본부	회원국 대표단	WHO 총회 참석(B위원회)
05.27	스위스(제네바)	UN 유럽본부	회원국 대표단	WHO 총회 참석(A위원회/Plenary)
05.28	스위스(제네바)	WHO 본부	회원국 대표단	집행이사회 참석
05.29	스위스(제네바)	UN 유럽본부	회원국 대표단	집행이사회 참석
05.30	스위스(제네바)	귀국		국가 간 이동
05.31	한국(인천)	도착		국가 간 이동

2 출장 주요내용

①	출국
일 시	05.25(일) 08:30(한국)~23:00(스위스)
장 소	한국(인천) 인천국제공항 → 스위스(제네바) 제네바 공항
참석자	박현지 연구원
출국 및 숙소 도착	
②	제78차 세계보건총회 참석 및 모니터링(B위원회)
일 시	05.26(월) 09:30~18:30
장 소	UN 유럽본부
참석자	회원국 대표단, 박현지 연구원
의제 26 (Pillar 4) 정부간 기구와 협정 의제 27 (Pillar 4) UN 기구 및 기타 정부간 기구와의 협력 ◆ 이스라엘은 WHO에서 비회원국의 국기 게양과 관련된 결의안에 대해 반대하며 표결을 요구함.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기 게양 문제가 또다시 논의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UN과 국제 시스템은 규칙 기반의 질서에 기초하며, 국가 인정과 주권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팔레스타인이 정식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감정, 정치적 상징이 법과 절차를 왜곡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함. ◆ 팔레스타인은 WHO 본부에 국기를 게양하는 결의안 채택을 국제사회의 연대의 상징으로 받아들임.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머지않아 세계 대부분의 수도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함. 이 결의안은 점령국의 국제적 지위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팔레스타인이 직면한 역사적 불의(알제리)와 인도주의적 문제를 언급하며 비회원국(팔레스타인)의 국기 게양 결의안을 지지함. (남아프리카공화국, 파키스탄, 이란, 이집트, 알제리, 중국, 스페인, 노르웨이, 스위스, 북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등) ◆ 회원국들은 WHO가 세계 보건의 중심적 결정 주체인 규범 기관임을 강조하며, 국제 보건 논의에서 우선순위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힘(노르웨이, 스페인). 또한 회원국들은 UN 및 GAVI, Global Fund, Unitaid와 같은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강화와 다자간 신탁 기금 메커니즘 구축과 자원 배분 최적화에	

대한 WHO의 노력을 지지함(중국, 스위스, 노르웨이, 스페인, 콜롬비아). 또한, 보건 이슈를 각국의 SDG 틀에 체계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지역 조정 메커니즘 강화 필요성을 언급함(북한). WHO 개혁과 다자주의를 지지하며,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할 의지를 밝혔음(중국).

- ◆ WHO 사무국은 유엔 시스템 및 다자간 기구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침에 감사를 표함. 현재의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회원국들과 협의하며 효과적인 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힘. WHO가 보건 관련 국제 조정 기관으로서의 명확한 역할을 부여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회원국들에게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임을 약속함.
- ◆ A78/32, A78/33 보고서는 회원국들의 이의 없이 확인됨.
- ◆ A78/B/conf/2 관련 투표(이스라엘 요청)에서, 투표권이 없는 아프가니스탄, 아르헨티나, 도미니카, 레바논, 미얀마,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수리남,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미국, 예멘을 제외한, 투표권이 있는 회원국 대표 181명, 결석 55명, 기권 27명 중에서 결의안 초안은 찬성 95표, 반대 4표, 기권 27표로 통과되었음.
- ◆ 표결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발언권을 얻은 호주는 WHO 내 팔레스타인 대표부의 권리 확대 결의안을 지지하지만, 이는 팔레스타인 국가로의 공식 인정은 아님을 분명히 함. 국기 게양은 유엔 시스템 내에서의 형평성을 위한 조치일 뿐, 회원국 지위 부여는 아님을 강조함. 호주는 ‘(Two-State Solution)’을 확고히 지지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임을 밝힘.

의제 18.2 대기 오염의 부정적 건강 영향에 대한 강화된 글로벌 대응을 위한 업데이트된 로드맵

- ◆ 회원국은 WHO의 지속적인 리더십에 감사를 표하며, WHO의 14차 일반 작업 프로그램 및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에 따라 2040년까지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을 50% 감축한다는 목표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힘.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업데이트된 로드맵과 특히 제도적 역량 강화를 환영함(감비아, 필리핀, 페루, 인도).
- ◆ 회원국들은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협력과 One Health 접근 방식을 강조하고(감비아), 유엔 시스템이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국가 기후변화 적응 계획에 따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함(칠레). 대기오염 해결은 환경 관리 뿐만 아니라 인권과 건강 형평성의 문제임을 언급하며(베트남, 브라질),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한 예방 조치가 공공 정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필리핀, 페루, 노르웨이, 칠레). 또한 대기 오염의 건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과학에 투자할 것(베트남), 핵심 취약 지역에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중국), 연대를 바탕으로 한 회원국들의 협력을 호소함(감비아, 베트남, 영국).
- ◆ 회원국들은 특히 정보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연구 및 대기 질 모니터링 데이터, 강력한 제도, 숙련된 의료 종사자, 보건 리더십이 필요함을 강조함(노르웨이, 콜롬비아, 러시아, 스페인). 3~5년

마다 역학 조사 및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건강 위험 발생 시 업데이트된 지표-특히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유되어야 함을 주장함(러시아). 일부 회원국은 대기 오염을 국가적 우선순위로 삼고 대기질 개선과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헌법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태국),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고 밝힘(스페인).

- ◆ WHO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를 표하며, 회원국들과 파트너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함. 첫째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예방 가능한 사망을 줄이기 위하여 다부문적 접근과 통합적 접근을 통해 회원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업데이트된 로드맵을 통해 모든 사람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회원국 각자가 리더십 역할을 강화하거나 맞춤형 국가 지원을 포함하여 대기오염의 건강 영향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에 감사함. 둘째, 규범 및 표준 설정을 위해 회원국들이 대기오염을 조절하기 위한 근거 기반 지침을 국가에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포함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온 것을 언급하며 제2차 대기오염과 건강에 관한 국제회의를 주최한 콜롬비아에게 감사를 표함. WHO는 규범적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과 안전한 삶을 증진하기 위해 유엔 시스템 전반의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함.
- ◆ 회원국은 A78/4에 포함된 보고서를 확인하고 결정안을 이의 없이 승인함.

의제 18.1 화학물질, 폐기물, 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 투표 전, 회원국들은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감사를 표하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 폐기물의 오염의 관리가 시급함을 인식하였음을 언급함. WHO의 화학물질 로드맵과 이에 관한 프레임워크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힘. 핵전쟁과 핵실험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의안을 지지하며, 환경 보전은 회복력 있고 공평하며 지속 가능한 보건 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임을 강조함.
- ◆ 일부 회원국은 납에 대한 노출이 어린이, 여성, 그리고 생산가능인구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의 원주민에게 까지에서 여전히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임을 강조함(가나, 노르웨이, 페루, 케냐)
- ◆ 회원국들은 유해 화학물질 및 의료 폐기물 관리를 위한 선제적이고 조율된 시스템의 부재는 만성 질환, 환경 오염, 그리고 예방 가능한 사망을 야기하여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점을 언급하고(자메이카, 일본, 이집트), 독극물 관리 센터 설립 및 생물학적 모니터링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더 많은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는 등(중국, 이집트) 국제사회가 의료 기반 생물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및 보건 시설의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 협력 강화와 지속적인 재정 지원할 것을 요구함(스리랑카). 또한 가장 취약한 계층의 건강 보장과 역량 강화를 촉구함(가나, 인도).
- ◆ 회원국들은 건강 및 기후 파트너십과 탄소 발자국 감소를 위한 노력(스페인),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국제 조약 협상, CPD 논의, BRS 및 미나마타 협약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브라질). 또한 공중보건 검사관 교육, 국가 화학 비상 및 유해 폐기물 전략 개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 폐

기물 운영 정책 및 지침 등을 발표하였으며(자메이카, 페루), 제2차 국제화학물질관리센터의 참여는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며 회원국 간의 파트너십과 참여를 요청함(필리핀).

- ◆ 북한은 결의안 채택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핵전쟁이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은 이 기구의 권한을 벗어나는 문제이며, 통제할 수 없는 문제로, 현재 사용 가능한 인적 자원과 재정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 신중할 것을 요청함. 핵전쟁의 파괴적인 결과는 자명하며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다고 언급함.
- ◆ WHO 사무국은 매년 화학 폐기물 오염으로 전 세계적으로 1,300만 명이 사망한다는 것과 이는 인간, 지구, 그리고 생태계의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 영향과 부담이 막대하다고 밝히며 회원국들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WHO 화학물질 로드맵과 화학물질에 대한 글로벌 프레임워크에도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함. 특히 납 관련 사망자 수는 매년 150만 명으로 저·중소득 국가의 어린이가 심각한 노출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하고, 페루를 포함한 회원국들의 리더십에 감사를 전함.
- ◆ 회원국은 A78/4에 포함된 보고서를 확인하고 결정안을 승인하였지만 A78/A/Conf./1 핵전쟁이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의안 초안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제기됨.
- ◆ 바나투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마셜 제도, 사모아, 바누아투)은 해당 결의안이 8차례의 비공식 회의를 통해 각국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려 노력하였음을 강조하며 핵전쟁은 모든 인류의 건강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기에 WHO가 지속적으로 핵전쟁의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와 정보를 갱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함. 이를 정치적 대립 및 이슈가 아닌 공중보건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며 표결이 아닌 합의로 채택되길 바란다고 언급함.
- ◆ 러시아와 북한은 해당 결의안이 WHO의 본래 권한을 넘어선다고 주장하며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힘, 군축이나 안보 이슈는 WHO가 아닌 다른 유엔 기구의 몫이며 정치화된 접근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냄, 제한된 WHO 자원을 핵전쟁 관련 반복 연구에 쓰는 것은 낭비라고 주장함. 과거에 이미 WHO나 유엔 기구들이 핵전쟁과 방사선의 건강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점을 들어, 특히 러시아는 50만 달러의 예산을 언급하였고 핵 문제가 아닌 소득 낮은 국가의 보건 문제 해결에 써야 한다고 비판함.
- ◆ 30여 개의 회원국들은(피지-공동 성명 발표) 핵무기는 세계 평화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건강과 인간, 안전한 환경에 대한 기본적 인권을 훼손하는 재앙적인 파괴를 초래하기에 단기, 장기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을 언급함(필리핀, 카자흐스탄, 키리바시) 핵무기와 전쟁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가 마지막으로 작성된 지 30년이 넘었음을 강조하며, 그 이후로 과학 공중 보건과 핵무기 및 관련 위험에 대한 세계적 전망은 달라졌기 때문에 수십 년간 축적된 새로운 연구를 통합하여 회원국들이 핵전쟁이 전례 없는 규모의 인류 건강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최신 과학적 증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임을 언급함(아일랜드). 유엔 전문 보건기구인

WHO만이 결의안의 이행을 주도하고 고유하고 전 세계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함(코스타리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 ♦ A78/A/Conf/1를 기록 전자 투표 시스템으로 진행함. 아프가니스탄, 아르헨티나, 도미니카, 레바논, 미얀마, 누에보,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미국 및 예멘은 투표권이 없음을 언급함. 투표권이 있는 회원국 대표 181명, 결석 53명, 기권 28명 중에서 결의안 초안은 찬성 86표, 반대 14표(북한, 러시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모나코 등), 기권 28표로 통과되었음.
- ♦ 기권표: 핵전쟁의 건강 영향은 WHO의 이전 보고서에서 이미 검토되었음을 언급하며, 핵 군축 및 비확산에 관한 실질적인 문제들은 관련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기에 WHO가 권한 밖에 있다는 점을 강조함(파키스탄).
- ♦ 반대표(영국-공동 성명 발표): (알바니아,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등) 회원국은 핵전쟁의 위험성은 이미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데, 이는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NPT) 전문에 명시되어 있다고 언급함.. WHO는 예산과 자원이 제한적이며, 때문에 핵전쟁 문제에 자원을 투입하는 건 우선순위에 어긋난다고 주장함. 해당 국가들은 과학에 기반한 공중 보건 정책을 지지하며, WHO가 핵전쟁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시급한 글로벌 보건 과제에 집중해야 함. 위와 비슷한 사유로 벨기에, 덴마크, 인도는 기권하였다고 밝힘.
- ♦ 찬성표: 핵전쟁이 공중 보건과 인류 전체에 미치는 심각한 결과에 대해 국제적 우려를 표하며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힘(나이지리아, 알제리, 말라위). WHO가 이미 재정적·인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임을 우려하며, WHO는 다른 기관이 다루지 않는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엄격한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강조함(스위스).
- ♦ WHO 사무국은 비록 합의가 아닌 투표로 진행되었지만 모두의 의견을 수용하며,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관련 보고서가 있었기에 업데이트가 충분하다고 보는 관점을 이해한다고 언급함. 하지만 핵전쟁의 결과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밝힘. 사무국에서는 현재 우선순위를 정하는 중이고, 심각한 재정 위기가 있으며, 재정적 제약을 더 많이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우려되지만 회원국들의 요청을 반영할 것임을 언급함.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함.

의제 18.3 기후변화와 건강

- ♦ 네팔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표해 결의안을 지지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폭염, 홍수, 매개 질병, 대기오염, 비전염성 질환 등 기후변화의 빈도와 강도 증가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인해 건강 위험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예측·예방·진단·대응할 수 있도록 1차 보건 시스템에 관련 도구 통합 필요하다고 강조함. 특히 ‘말리 선언’과 ‘COP26~28 이니셔티브’ 등 국제적 합의들을 기반으로 저탄소·회복력 있는 보건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 국제기구 등 다자간 협력체계 강화하고 국가별 적응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속도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함. 선진국과 공여국에 재정 지원 및 자원 확대를 공식 요청하여 개발도상국 보건 시스템이 대응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힘. 기후 위기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국제 행동 계획의 이행을 통해 공평하고 회복력 있는 보건 체계를 만들자고 촉구함(태국).

- ◆ 폴란드는 유럽연합을 대표하여 결의안을 지지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함. 기후 변화가 감염병 확산, 항생제 내성, 영양실조, 환경오염 등 인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WHO의 기후-보건 행동계획 이행의 시급성을 강조함. 보건 시스템은 적응을 위해 회복력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취약 계층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을 명시함. 또한, WHO는 기후 행동 촉진과 지속 가능한 보건 시스템을 구축할 책임이 있으며, One Health 접근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건강 형평성 증진, 예방 중심의 보건 정책을 확대할 필요를 언급함. COP30과 파리협정 10주년을 계기로 국제 협력과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기후-보건 연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함(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가나, 불가리아)
- ◆ 피지는 태평양 도서국을 대표해 기후변화와 보건에 관한 글로벌 행동 계획 수립을 환영하며, 건강을 기후 의제 중심에 둘 것을 촉구함. 특히 리더십·조정·옹호, 증거·모니터링, 국가 행동 및 역량 구축의 세 가지 활동 영역을 강조하며, 지구 온도 상승이 초래할 해수면 상승, 감염병, 식량 위기 등 복합적 건강 위협에 주목함. 보건 시스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시급하고 변혁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전통 지식과 지역사회 중심 접근,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한 전략을 통한 기후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함. 또한, 국제적 협력과 맞춤형 지원, 역량 강화가 필수라며 WHO 회원국과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체적 행동을 촉구하고 기후 보건 재정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장함(바하마, 투발루, 호주, 필리핀, 뉴질랜드, 키리바시).
- ◆ 모잠비크는 아프리카 지역 47개국을 대표해, 기후 변화가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협한다고 강조함. 극심한 기후 현상이 아프리카에서 빈발하며 인적·물적 피해, 인구 이동, 질병 증가, 사회 기반시설 파괴 등을 초래하고 있음을 호소함. 아프리카는 탄소 배출 기여는 적지만 기후 위기 피해는 크다며, 회복력 있는 보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긴급 조치를 촉구함. 모든 기후 정책에 건강을 통합하고, 건강 취약성 평가, 국가 건강 적응 계획, 저탄소 보건 전략 수립이 필요함. 또한, 과학 기반 대응, 기후·건강 관측소 설립, 부문 간 협력, 재정 동원 및 국제 연대를 강조함(에티오피아, 케냐, 세네갈, 남비아, 감비아, 잠비아).
- ◆ 페루는 다수의 회원국들과 함께 기후 변화와 건강에 관한 WHO 결의안의 합의 채택을 환영하며, 지난 1년간의 협의 과정으로 마련된 글로벌 행동 계획 초안을 높이 평가함. 기후 변화가 1.5도 임계점을 넘으며 호흡기 질환, 열 관련 질병, 전염병 확산 등 공중 보건에 즉각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보건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또한 계획이 구속력이 없고 기존 예산 내에서 추진된다는 점도 부각하며, 이행이 지연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며 지체없이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함(브라질, 캐나다, 가나).

- ◆ 사우디아라비아는 해당 결의안의 채택을 제79차 총회까지 연기할 것을 요청함. 산유국으로서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할 필요성과 특히 보건 부문에서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힘. 하지만 (제조업이 주 산업인) 개발도상국들이 스스로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대가를 치르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함. 기후 적응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국제 계획은 UNFCCC와 파리 협정의 원칙인 형평성과 공동의 그리고 공유되지 않는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에 부합해야 할 것을 언급하며, 각국의 국가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함.
- ◆ 이에 대응해 영국은 이 계획이 이번 총회에서 채택되는 것을 지지하며, 다부문적 행동, 증거, 옹호를 강화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걸쳐 기후 변화 고려 사항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시스템을 환영한다고 밝힘. 하지만 다양한 국가 상황에 비추어 공통적이고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역량 원칙은 UNFCCC 및 파리 협정에 따른 행동에만 관련되고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세계 행동 계획이나 이해관계자의 업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계획의 기본 틀과 원칙 중 Paragraph 1에서 벗어나는 것을 명시하고자 이에 대한 추가 내용을 서면 성명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함.
- ◆ 대한민국은 WHO의 기후 변화와 보건에 관한 국제 행동 계획을 지지하며, 국내 보건 시스템에 기후 회복력을 통합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중장기 기후 보건 계획 수립과 폭염 대응 서비스 등). 또한, 기후 변화와 국제 교류로 인한 감염병 확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통합 감시 체계를 운영 중이며 매 개체 감시를 강화하고 주요 입국 지점에서의 방역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힘.
- ◆ 한편 일본은 수정안에 대해 (투표가 아닌) 합의를 제안함. 그러나 수정안 중 Paragraph 1에 새로 추가된 문구, 즉 "2020년 이후 기후 재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원은 여전히 충분하다"는 문구가 충분한 논의 없이 작성된 것에 유감을 표함. 일본은 이 수정에 대해 완전히 지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기후 재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는 협정 포럼에서의 논의를 예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며 UNFCCC와 파리 협정의 협상 사안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함.
- ◆ WHO 사무국은 오늘 토론에 참여해준 회원국들에게 감사를 표함. 첫째로, 기후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거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음을 강조함. 기후 위기로 인한 건강 부담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건강 증진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확인하며 회원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기후 변화와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둘째, 회원국의 헌신으로 가능했던 GPW의 전략적 우선순위 이행에 대한 회원국들의 강력한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함.

③	제78차 세계보건총회 참석 및 모니터링(A위원회/Plenary)
일 시	05.27(화) 09:30~20:00
장 소	UN 유럽본부
참석자	회원국 대표단, 박현지 연구원

[A위원회]

의제 14 (Pillar 1)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년 의제의 보건

- ◆ A78/51 보고서(Sixth report of Committee A)는 회원국들의 이의 없이 채택됨.
- ◆ 회원국들은 해당 보고서를 높이 평가하고 감사를 표하며, WHO 사무국의 SDGs와 30억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고 밝힘. SDGs의 본래 목적인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회원국 간의 협력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
- ◆ 다수의 회원국들은 SDG 중 많은 보건분야 관련 목표들이 2030년까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함(일본, 스페인, 프랑스, 케냐, 노르웨이). 5세 미만 아동 사망률과 백신 접종률 개선, 그리고 기대수명 증가 등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 졌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 기후 변화, 그리고 저소득층의 의료 재정 감소로 인해 정신 건강 문제 등 비전염성 질환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함(아일랜드, 아랍에미리트).
- ◆ 이를 해결하기 위해 UHC 축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일본, 아일랜드), 세계은행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일본에 UHC 지식 허브를 설립하고 있음을 밝힘(일본), 포괄적인 보건프로그램을 통해 UHC의 일환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구단위의 의료 및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언급함(케냐, 사우디 아라비아),
- ◆ SDG와 30억 목표에 대한 보고서는 보건 관련 지표가 저해되어 있으므로, 혁신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함(한국, 프랑스). 재정 효율성을 위해 건강과 질병 부담에 대한 권리를 고려해 국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정 및 인적자원 시스템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한국, 호주). 측정 가능한 로드맵 마련, 건강 형평성과 보건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보건 데이터 시스템의 중요성을 언급함(한국, 인도). 일부 회원국은 비상 대응과 데이터 관리 경험을 기꺼이 공유할 것과 SDGs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힘(한국, 아일랜드). 일부 회원국은 WHO는 현장에 국제 보건 사업의 지휘 및 조정 권한을 명시적으로 명시한 유일한 기관임을 강조하고, 현실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거버넌스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히며(프랑스), 다부문 및 국가 간의 협력과 조율이 강화될 필요성을 언급함(사우디 아라비아, 노르웨이, 호주).
- ◆ WHO가 현재 겪고 있는 현재의 재정 위기가 더 나은 건강과 웰빙, 선박 건강 보장 및 보건 위기 대응 보호 측면에서 제14차 작업계획에 명시된 목표 준수를 계속 저해하는 것을 지적하며, 자금이 부족한 국가에 기술 지원을 우선시 할 것과 지속 가능한 다른 재원 조달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함(스페인, 자메이카, 노르웨이, 인도, 호주). 한편 데이터를 확보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지표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보고를 조율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 정보 시스템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함(케냐).

- ◆ WHO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의견에 감사하며, 최근 발표된 World Health Statistics 2025 Progress Report에 따르면, 보건 지표 진전이 불균형적이며, 산모·신생아 사망률 및 비전염성 질환 조기 사망률 개선이 시급하고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을 목표치의 3분의 1로 줄이는 것은 전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임을 밝힘. 또한 보편적 의료 보장을 2030년까지 달성하려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그 핵심 기반은 국가 주도형 데이터 시스템 강화와 1차 의료 투자,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임을 강조함. WHO 사무국은 디지털 플랫폼(보건데이터허브, 팬데믹 정보 허브 등)을 통해 시의적이고 활용 가능한 데이터 접근성을 확대할 것과 보건 정보 시스템, 감시, 통계 개선을 통해 일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제 질병 분류체계 등 글로벌 공공재의 지속 제공, 새로운 GPW 14 측정 가능한 결과 중심의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결과를 도출할 것을 강조함. 회원국과 함께 데이터, 보건 시스템, 혁신 재정 기반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건강 증진 성과를 이끌어낼 것을 약속함.

의제 15 (Pillar 1) 항생제 내성

- ◆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2024년 유엔 총회에서 AMR에 관한 고위급 회의의 정치 선언을 통해 Quadripartite organizations(4자 조직)이 AMR 관련 글로벌 행동계획을 업데이트 하도록 약속한 것과 국제 협력 확대 및 피해 완화의 중요성을 환기함. AMR 대응을 위해 One Health 접근 방식을 반영하여 2026년까지 글로벌 행동 계획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며(자메이카, 사우디아라비아, 아일랜드, 영국,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인도), 특히 감염 예방, 진단 및 관리에 중점을 둔 사람 중심의 개입을 환영하는 제14차 일반 작업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지지함(자메이카).
- ◆ 회원국들은 2024년에 채택한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한 강화된 공약을 지지하며, 재정 제약, 기술 역량, 인식, 특히 온라인 약국의 새로운 트렌드와 관련된 규제되지 않은 항생제 사용이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격차가 되고 있음을 강조함(케냐, 사우디아라비아). AMR이 인간, 동물, 환경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 지구적 위협임을 강조함(폴란드, 이탈리아). WHO가 항생제 내성(AMR) 연구 및 보건 시스템 강화 노력에 대한 통합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함(독일, 이탈리아, 영국)
- ◆ 회원국은 AMR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및 재정 지원 확대(자메이카),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 데이터와 경험을 공유할 플랫폼 개발 요청(스리랑카), 국가 차원의 다부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함(콜롬비아, 케냐, 레바논, 인도), AMR 감시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라크, 싱가포르)과 교육 및 홍보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싱가포르) 범분야적 접근 방식을 제안함(브라질). 유엔환경계획 본부가 있는 Nairobi로 AMR 조치를 위한 독립된 패널 설립을 희망함(영국). 일부 회원국은 AMR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한국, 중국), 개도국 연구실 지원을 위한 진단·분석 기술 제공 등의 국제 협력에도 기여함(한국). AMR 국가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모니터링, 예방접종 촉진, 교육 및 홍보 등으로 항생제 사용이 개선되는 등 성공적으로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힘(중국, 탄자니아).
- ◆ WHO 사무국은 회원국들 중 특히 2024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WHO와 유엔 총회가 개최한 국제 회의 및

장관급 회의에 참여하고 당시 합의한 획기적인 공약과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 감사를 표함. AMR은 보건 분야를 넘어 다부문에서 긴밀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현재 170개국 이상이 AMR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을 수립했지만, 그 중 국가 행동 계획 이행을 위한 전담 재정을 확보했다고 보고한 국가는 10%에 불과함을 언급함. 다수의 지역 성명에서 언급한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내에서 항생제 내성(AMR)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의 가속화 필요성은 WHO의 목표와 일치하며, WHO는 1차 의료에서 AMR 개입을 주류화하도록 국가들을 지원하고, 이에 따라 효율성과 실질적 결과 중심의 접근을 강화하고 있음. 2030년까지 AMR을 10% 감소시키는 목표를 포함한 우선 과제를 설정했으며, 건강 분야의 진전을 위한 핵심 지표로도 확정함. 최근 약물 내성 세균 감염 대응을 위한 전략적 운영 우선순위와 모니터링 프레임워크가 발표되었음을 알리고, 지속적인 국제 협력을 통해 감염 예방, 진단, 감염 관리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공동 목표를 강조함.

[Plenary]

의제 9. 폐회식

- 주요 위원회 보고를 진행하고, 모든 회원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결의안과 결정안이 채택됨.
- A위원회 의장은 A위원회의 업무 보고서를 발표하며, 오늘날 세계 보건이 마주한 복잡성과 그 속에서 요구되는 연민, 그리고 지속적인 헌신의 가치를 강조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열이 아닌 협력과 연대이며, 팬데믹 협정 승인은 중요한 이정표임을 언급함. 특히 국내 생산 능력 강화와 병원체 접근, 이익 공유 시스템에 대한 다음 단계의 구체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함. 협상 과정 전반에 걸쳐 성실히 임해준 정부간 협상기구, WHO 사무국, 공동 의장단 및 관련 인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함. 또한, 2026-2027년 WHO 프로그램 예산 승인에 환영의 뜻을 표함. 최근 팬데믹과 항생제 내성 증가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친 혼란을 교훈 삼아, 인간-동물-환경을 아우르는 'One Health' 접근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함. 사회적 연결이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공동체와 경제의 회복력에도 핵심적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보건 시스템이 치료를 넘어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함을 시사함. 여성, 아동, 청소년의 보건과 관련된 미해결 과제와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접근, 자금 조달, 정책적 집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함. 마지막으로 A위원회의 부의장, 보고자, 공동 서기, 사무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Dr. Tedros 사무총장의 리더십과 기여에도 깊은 감사의 뜻을 밝힘. 아울러 나미비아 대통령이 자신을 보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의료 리더십이 가진 보람과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언급함. 모든 대표단이 새로운 결의와 희망을 품고 돌아가길 바란다고 연설을 마침.
- B위원회 의장은 B위원회 활동 및 성과 보고를 발표하며, 12건의 결정과 10건의 결의안을 검토하고 승인하였으며 Pillar 4에 따라 예산 및 재정, 감사 및 감독, 인력 및 거버넌스에 대한 주요 과제를 논의하였음을 시사함. 2026-2027년 평가 분담금 규모를 포함하여, 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을 채택했음을 언급하고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보건 현황, 글로벌 전략 및 행동 계획,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서태평양 지역 재배치에 관한 결의안 및 결정 채택을 강조함. 회원국 대표단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며, 실시간 발언자 요청

시스템과 전자 투표 등 새로운 기술의 효과적인 도입을 높이 평가함. B위원회 활동에 기여한 부의장, 보고자, 기타 주요 인사들에게 감사를 표함. 세계 보건 목표 달성을 위해 다자주의와 공통의 기반을 모색하는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함. 회의 기간 동안 B위원회 사무국이 보여준 전문성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함. 모든 사람의 건강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각국 대표단이 세계적 공약을 국가적 행동으로 전환해야 할 책임을 강조하며 연설을 마침.

- ◆ 사무총장은 각 위원회 보고서를 확인하고 집행위원회의 활동에 감사를 표함. 제79차 세계보건총회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음을 발표하고, Teodoro Herbosa 의장의 리더십과 WHO 팬데믹 협정 채택에 감사함. A위원회와 B위원회 의장에게 기념품을 수여함.
- ◆ 의장은 총회 기간 동안 A위원회와 B위원회 의장과 부의장 및 모든 회원국들의 리더십과 봉사에 감사를 표하고 주요 결의안 채택과 2026-2027년 예산안을 중요한 성과로 언급함. 세계 보건 목표 달성에 있어 다자주의, 형평성, 그리고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시사함. 총회에 기여한 회원국, 파트너, NSA, 통역사 및 WHO 사무국에 감사를 표함. 제78차 세계보건총회를 세계 보건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다지고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고 포용적이며 공평한 보건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하며 공식적으로 폐회를 선언함.

④	제157차 집행이사회 참석 및 모니터링
일 시	05.28(수) 09:30~18:00
장 소	WHO 본부
참석자	회원국 대표단, 박현지 연구원

의제 1. 의장, 부의장 및 보고관 선출

- ◆ 제 157차 집행이사회 의장으로 호주의 Dr. Blair Comely가 의장으로 선출됨.
- ◆ 전임 이사회 의장은 의장직에서 물러나며 다자주의에 대한 위협, 갈등, AI, 기후 변화, 그리고 성평등과 보건 외교와 같은 세계적 우선순위의 재평가를 포함하여 국제 사회가 직면한 과제들을 되돌아보고, 이사회는 사람 중심의 의사결정의 중요성과 더욱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WHO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언급함. 앞으로도 목표 달성을 위해 회원국들에게 자선 활동, 재정 지원과 지원 확대 등 참여를 독려함.
- ◆ 사무총장과 전임 의장, 새로 선출된 의장이 기념품 수여와 기념촬영을 진행함.
- ◆ 사무총장은 전임 의장의 리더십과 임기동안 그의 노력에 대해 감사하며, WHO의 미래를 위한 우선순위 설정, 개혁, 그리고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함. 또한 회원국과 사무국이 팬데믹 합의안 승인과 고위급 서약 행사 기간 동안의 기여, 제공한 지원과 지침에 감사를 표함.
- ◆ 신임 의장은 팬데믹 합의 채택에 대해 논의하며, 병원체 접근 및 이익 공유 시스템(IPS)의 최종 확정 필요성을 강조함.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와 기술 지원에 중점을 둔 WHO 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함. 2억 1천만 달러 지원 공약과 5050 자금 모델 충족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에도 주목하였고, 효율성, 예산 규율, 그리

고 의미 있는 참여와 같은 우선순위를 설명함. 그 다음으로 호주와 중국의 대표단, PBAC 의장, 그리고 대사 (ambassador)의 리더십과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합의 도출 과정에서 보여준 회원국들의 유연성과 동료애를 언급함. WHO 목표 달성에 기여한 바베이도스와 집행이사회의 공헌에 감사를 표함.

- ◆ 아프리카, 유럽, 동남아시아, 동지중해 지역에서 각각 토고의 Dr. Yawa Jubisan(2nd), 노르웨이의 Dr. Katrin Maria Loftus(1st), 태국의 Dr. Pong Sedon Pok Permedi(3rd), 사우디아라비아의 Mr. Farhad, Abdurram Al Jahlil(4rd) 네 명이 집행의사회 부의장 후보로 거론되었고, 회원국들의 이의 없이 선출되었음. 보고관은 파나마의 Senora Carmen Avila Ortega로 선출되었음.

의제 2. 세션 개최 및 의제 채택

- ◆ 의제 6.4 WHO의 공식 파트너십 주최를 위한 제안, 의제 6.6 독립 전문가 감독 자문위원회 위원, 의제 7.3 직원 규정 및 직원 규칙 개정안은 해당 제안이 없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이의 없이 의제 목록에서 삭제됨.
- ◆ 의장이 사무국에서 제안한 발언 시간 제한과 달리,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WHA 78의 관행과 PBAC에서 이미 논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단축하여, EB 구성원에게는 2분, 기타 모든 발언자에게는 1분을 제안함. 또한, 제42차 PBAC에서 심의할 의제와 관련하여 각 문서에 전체 논의보다는 PBAC 보고서와 그 권장 사항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기를 제안함.
- ◆ 폴란드는 이 제안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대표단은 이전 회의와 마찬가지로 WHO 집행이사회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고, 이사회에 유럽연합 대표단이 WHO 집행의사회 제157차 회의에서 연합 권한 내의 자금 조달 문제를 다루는 소위원회, 초안 작성 그룹 또는 기타 하위 부서 회의의 심의에 투표권 없이 참석하고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도록 요청하였다고 발언함.
- ◆ 폴란드 외 다른 회원국의 이의 및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폴란드 대표단의 의견을 포함한 의장의 제안을 따르도록 결정됨. 의제 7.1 아프리카 지역 사무처장 임명을 당일 오후 세션의 첫 번째 안건으로 확정함.
- ◆ 사무총장은 신임 의장을 축하하고 집행 이사회의 새로운 구성원들을 환영함. 올해 총회의 역사적 성격과 팬데믹 합의 채택을 강조함. 테드로스 박사는 사무총장의 재정비 및 우선순위 결정 절차에 대한 지지와 의무 분담금 증가에 감사를 표함. 거버넌스 개혁의 중요성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함. 또한 거버넌스 개혁 강화 및 Mohammed Yaqub Janabi 교수의 아프리카 지역 사무처장 후보 지명을 포함한 이사회의 향후 활동을 설명함. 마지막으로 WHO와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이라는 WHO의 비전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와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개회사를 마침.

의제 3. 제78차 세계보건총회 결과

- ◆ 의장은 제78차 세계보건총회의 전반적인 결과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상기하고자 함. 첫째, 제78차 세계보건총회는 새로운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사무총장에 대한 잠재적 의혹 처리 및 조사 절차를 결정하였고, 집행의사회 의사규칙 개정이 필요함을 언급함. 제42차 PBAC은 보고서에서 집행이사회가 이

러한 개정안(EB 157/16)을 검토할 것을 권고함. 둘째로, 이집트 대표단은 이집트와의 협의 후 AMRO, EMRO, OIC의 지지를 받아 제78차 세계보건총회 의제에 추가 안전을 제안했지만, 이집트는 WHA 의제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해당 제안을 철회한 바 있다며 논의를 시작함.

- ◆ 이집트는 의장의 임명을 축하하며, AMRO, EMRO, OIC 회원국에게 CRR 항목에 대한 지지에 감사를 표함. WHO 지도부와 합의하여, 센터의 가치와 책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사무국이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센터의 범위와 운영 방법론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하는 브리핑 세션을 개최할 것을 제안함. (호주는 이집트의 이 브리핑 요청을 지지함.)
- ◆ 회원국들은 신임 의장 선출을 환영하고, 전임 의장의 리더십에도 감사를 전함. 제78차 세계보건총회와 관련해서는, 팬데믹 협정 채택과 2026-2027년 프로그램 예산안 승인을 강조함.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등 신규 집행의사회 회원국들을 환영함(카타르). 전자 투표 실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언급함(한국). WHO 운영을 위한 WHO 운영을 위한 더욱 효율적인 절차를 촉구하고 투명성과 책임성, 수평적 및 수직적 협력을 강조함(이스라엘, 폴란드). 의무 분담금 증액을 강조(이집트, 노르웨이)하고 PABC 부속서 체결 및 WHO 거버넌스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이집트). 사무총장에 대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EB 의사규칙 변경에 대한 결정 시점을 지지한다고 밝힘(노르웨이).
- ◆ WHO의 기술적 작업에 대한 비국가 행위자들의 기여를 높이 평가함(호주) 공약 이행에 대한 협의 및 모니터링을 위한 충분한 시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필리핀), 진행중인 개혁과 WHO 재정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브리핑을 촉구함(폴란드). 총회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며 회원국들이 병원체 접근 및 이익 공유 시스템(IPS)을 최종 확정할 것을 촉구함(토고).
- ◆ 한편, WHO의 예산 압박으로 인해 많은 결의안과 결정안이 채택된 것에 대한 우려와 실질적인 논의를 위한 시간제한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함(스위스, 호주). 팔레스타인 점령지의 아동 건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폭격과 체계적인 인권침해의 종식을 촉구하며, 팔레스타인의 보건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스페인). 팔레스타인은 이에 응답하여, 가자지구의 많은 인질과 열악한 보건 상황을 언급함. 보건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이 문제를 정치화하지 않아야 한다며 팔레스타인의 건강 상태와 현재 상황이 그들의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호소함. 보건 비상사태 프로그램의 강화와 AMR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함(사우디 아라비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주제와 문서 배포에 대한 개선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함(칠레).
- ◆ 의장과 사무국은 팬데믹 합의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와 WHO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 분담금 증액의 중요성, IPS 시스템에 대한 추가 작업의 의지, 분담금에 대한 폭넓은 인식, 문서 관리와 우선순위 설정 등 많은 주 내용이 이번 의제의 의제 6(거버넌스 및 EB 운영)과 겹친다고 언급함. 또한 전자 투표 도입과 전통 의학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를 높이 평가하였고, 이사회 및 회원국들의 풍부한 논의에 감사를 표하고 이집트의 브리핑 제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함.
- ◆ 이사회는 EB157/16 문서에 포함된 결정을 회원국들의 동의 없이 채택함.

의제 4. 집행이사회 프로그램 예산, 관리 위원회 보고

- ◆ 노르웨이의 Dr. Catherine Maria Loftus는 제 41차, 42차 PBAC 의장으로 PBAC 보고서에 대해 설명함. PBAC는 2025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29개 의제를 심의하고, 2026-2027년 프로그램 예산안 및 지속 가능한 재정을 포함한 다양한 사안(의무 부담금 증가, 감사 및 인력 배치 등)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였고 이는 WHA78에서 채택되었음. PBAC는 독립 전문가 감독 자문 위원회의 연례 보고서를 환영하며 지속 가능한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함.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유엔의 성평등 시스템 전반 행동 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음. PBAC는 사무국이 특히 새로운 WHO 조직 구조에 맞춰 규정 준수, 위험 관리 및 윤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함. 위원회는 합동 감사단 권고사항의 90% 이행률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완전한 이행을 제안함. 또한 위험 관리 및 기능 평가 강화 노력을 칭찬하고 외부 감사관 선정 절차 개정안을 제시함. PBAC는 평가 기능의 성과를 칭찬하고, WHO 직원 협회 대표의 성명서와 주최 파트너십 보고서를 논의함. 위원회는 집행이사회가 보고서를 참고하고 재정 규정 및 재정 규칙 개정에 대한 결의안 초안을 채택할 것을 권고함.
- ◆ 회원국들은 PBAC가 거버넌스 및 예산 관련 의제 검토에 기울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감사를 전함. WHO의 구조조정에 있어 투명성을 촉구함(한국), 성착취, 학대, 괴롭힘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토고), Agile 회원국 태스크그룹을 지지하며, 새로운 결의안에 대한 명확한 규칙과 불필요한 업무의 제거(우크라이나), 결의안 이행을 위한 혁신적인 매커니즘의 필요성을 강조함(파나마). 재정과 관련한 우려 및 관심을 표한 일부 회원국들은 투자액의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비용 산정 절차와 결의안 관리를 요구하거나 예비 예산을 준비하고, 모든 결의안에 재정 예산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관점도 있었음(스위스, 이스라엘).
- ◆ 의장은 효과적인 원가 계산 프로세스 구축, 결의안 효과적인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적절한 평가를 보장하는 등 아직 미완의 과제가 남아있지만 PBAC의 매우 훌륭한 성과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회원국들은 EB157/2에 포함된 보고서를 확인함.

의제 5. 보건 비상 예방,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상임위원회 보고서

- ◆ 의장은 2025년 4월 14일에 열린 상임위원회의 제6차 회의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하며, 2024년 상임위원회의 임시회의 및 제5차 회의를 주재한 의장 Dr. beleth Pugh(모로코)와 제6차 상임위원회 부의장 Mrs. Christine harmston(캐나다)의 상임위원회에서의 임기가 끝났음을 선언함.
- ◆ 보고서는 사전 녹화된 영상으로 성명을 제출하였음.
- ◆ 제6차 보건 비상사태 대비 상임위원회 회의는 소아마비 상황에 대한 최신 데이터와 소아마비 재유행 위험 국가에 대한 임시 권고안의 연장에 중점을 두었음. WHO와 국가 및 비국가 기구, 특히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영향과 지속적인 협력이 검토되었고, 상임위원회는 보건 비상사태 대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국제적 체계 강화 노력에 대한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힘.
- ◆ 보건 비상사태 대응의 진전과 재정적 어려움과 관련하여 이니셔티브의 전략적 환경 조성 및 회원국의 효과성

향상에 있어 프레임워크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 프레임워크는 회원국들이 국제보건규정(IHR) 및 WHO 팬데믹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함.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대응에는 진전이 있었지만, 전 세계적인 재정적 어려움은 조치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각국은 자원 공유 및 파트너십 개선을 포함하여 국가적 대비 및 대응 체계를 최적화할 것을 권장함.

- ◆ 상임위원회는 2024년 주요 진행 중인 보건 비상사태와 관련된 사무국의 조치에 대한 최신 조치를 보고받았는데, WHO는 18개국 및 지역에서 51건의 비상사태에 개입했으며, 인도주의적 위기 또는 기후 관련 재난과 관련하여 재발하는 비상사태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사무국이 상임위원회와 모든 WHO 회원국에 지역 및 전 세계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 것과 상임위원회 의장 임기 동안 지원해 준 회원국 및 파트너들에게 감사를 표함.
- ◆ 회원국들은 상임위원회와 WHO 사무국의 세계 보건 비상사태 대비 강화 노력과 리더십에 감사를 표라고 팬데믹 합의의 성공을 언급함. 이집트는 소아마비, 엡폭스, 기후에 민감한 발병 등 세계 보건 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강력한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 백신 접종률 향상, 그리고 지역사회의 대비 및 대응 전략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함(이집트, 레소토). 향후 대응 태세를 확보하기 위해 핵심 비상사태 기능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가 보건 시스템의 역량 격차를 해소할 것을 촉구하였음(이집트, 레소토). WHO가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예측 가능하고 다각화된 자금 지원을 촉구함(레소토).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최신 정보와 위원회의 권고 사항의 중요성을 강조함(토고).
- ◆ 팬데믹 합의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국제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의 임기를 2026년 이후로 연장할 것, 다자간 소통 및 이행을 위한 지역 및 통합 작업 메커니즘 강화(태국, 중국), 하이브리드 형식을 활용한 비용 효율적인 회의를 제안함(태국). WHO가 필수 활동과 비필수 활동을 구분하고 자원 배분을 최적화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함(중국). WHO 팬데믹 협정이 채택된 것이 중요한 진전임을 언급하며, 아프리카에 150만 회분의 엡폭스 백신을 지원하여 효과적인 발병 통제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며 다자 간 협력 체계 강화 의지를 재확인함(일본).
- ◆ 의장은 회원국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소아마비, 엡폭스, 기후에 민감한 발병과 같은 문제를 포함하여 비상사태 예방, 대비 및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적절한 재정 지원과 더 광범위한 우선순위 설정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함. 팬데믹 합의의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대비 및 모니터링 관련 업무에 대한 위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언급하고, 사무국에 태국 관련 보도, 제7차 세퍼드 회의 일정, 그리고 구체적인 재정 지원 문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 ◆ 사무국은 회원국들이 제기한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는 EB156/39 문서에서 이미 WHA에 권한을 확대하였음을 알리고, 2026년 보건총회에 대한 권한 연장 결정과 보고서 제출 요청했다고 밝힘. 보고서는 독립 감독 및 자문 위원회, IHR 및 팬데믹 협정 산하 기구 등 다양한 기구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9월까지 초안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따르는 재무 및 거버넌스 상의 어려움과 (내년)2월에 정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함.

- ♦ 의장은 해당 안전과 관련한 문서 EB 157/3에 포함된 보고서를 이사회의 이의 없이 확인함.

의제 7.1 아프리카 지역 사무처장 임명

- ♦ 의장은 의제 7.1 아프리카 지역 사무처장 임명을 위한 의제 항목 7.1에 대한 심의가 비공개 회의에서 시작됨을 알리고, 회의 결과가 비공개 회의 직후 시작되는 오후 세션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함.
- ♦ 의장은 5월 18일 아프리카 지역위원회가 Dr. Mohammed Yaakov Janabi를 아프리카 지역 이사로 지명한 내용을 요약하였음. 헌장 제52조와 규칙 및 절차 제56조를 참조하여 이사회는 투표용지를 각 한 장씩 배부 받으며 투표자의 이름이나 국가의 이름 등이 특정된 투표용지는 무효로 간주하고, 임명에는 기권을 제외한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함.
- ♦ 투표 결과에 따라, Dr. Janabi를 아프리카 지역 사무처장으로 임명할 것을 결정하였음. 의장은 이사회가 이사 임명 관련 결의안 초안 내용에 따라 선출이 4개월 늦어지기 때문에 규정 상 5년의 임기가 2025년 6월 30일부터 2031년 1월 말까지, 즉 5년 7개월로 연장되는 것을 동의하는지 확인하였고, 해당 결의안은 이사회 국가들의 이의 없이 채택되었음.
- ♦ 해당 안전과 관련된 문서 EB157/13와 비공개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위 내용과 같음)을 보고관이 낭독함. 사무총장이 Dr. Janabi에게 2031년 1월 31일까지의 임기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함을 알림. 사무총장은 계약서에 서명하며, 공식적으로 Dr. Janabi가 아프리카 지역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었음.
- ♦ Dr. Janabi는 선서 후 아프리카 지역 사무처장 수락 연설을 진행함. 그는 자신에게 보내주신 신뢰와 확신에 깊은 겸손과 감사를 표함. 아프리카 지역이 직면한 중대한 도전과 기회를 인식하고, 모든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함. WHO가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어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함. 또한 사무총장의 리더십과 임시 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Dr. Chikwe에게 감사를 표함.
- ♦ Dr. Chikwe(아프리카 지역 사무처장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인한 대행)는 Dr. Janabi의 임명을 축하하며, 그가 임기 기간 동안 시작된 전략적 재조정 및 우선순위 설정 과정을 되돌아보고, 회원국과 사무총장이 보여준 신뢰와 협력에 감사를 표함. 그는 WHO 아프리카 지역 사무소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Janabi 박사에게 지속적인 지원과 도움을 약속함.
- ♦ 사무총장은 Janabi 박사의 임명을 축하하며, 그의 역량과 경험에 대한 확신을 표명함. 아프리카 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직이 직면한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의 필요성을 인정함. Dr. Chikwe가 대행 기간 동안 보여준 모범적인 리더십과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축사를 마무리함.
- ♦ 회원국들과 지역사무소의 대표들은 Janabi 박사에게 축하를 전하고,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높이 평가함. 한편 Dr. Fauci의 서거에도 애도를 표하고, 보건 시스템 강화 및 비상 사태 대비에 대한 그의 리더십과(우크라이나) 그의 비전과 경험에 대한 지지를 표함. 또한 아프리카의 주요 보건 문제 해결의 중요성(아이티), 공동의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일본), 공평한 대표성을 포함한 협력의 우선순위(나이지리아)를 당부하기도 함.

의제 6.1 평가: 연례 보고서

- ♦ 의장은 해당 안건이 EB 157/4 및 EB 157/4 Add.1 문서와 관련있음을 설명하며, 이전에 프로그램 예산 관리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는 것을 알림. 이사회는 보고서를 참고하고 초안 결정을 채택할 것을 권고함.
- ♦ 회원국들은 WHO의 평가 기능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2024년 평가 연례 보고서에 명시된 성과, 특히 19건의 평가 완료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2021-2025년 평가 작업 계획 이행의 진전을 환영함. 국가 차원에서 WHO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국가 프로그램 평가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함.
- ♦ 회원국들은 재정적 효율성, 평가 자원 확보, 형평성, 지속 가능성, 평가 독립성, 그리고 국가 차원의 집중을 강조함(이집트, 네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포괄적인 평가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함(네팔, 중국). 또한, 평가 사무국 책임자의 비정치적 보고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비용 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장려함(한국). 과거 평가 사례를 통합할 때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를 모두 활용하는 방식을 제안함(일본).
- ♦ 평가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권고사항 이행을 추적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경영진의 대응, 조정 및 매커니즘의 중요성을 강조함(중국, 독일). 평가 기능을 보호하는 한편, 평가의 질 관리도 중요함을 언급하고 WHO는 기후 변화, 팬데믹 예방, 항생제 내성 등 다부문 보건 문제에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프랑스, 한국).
- ♦ 사무국은 회원국들이 2024-2025년 평가 계획작업과 업데이트 된 평가정책, 그리고 평가 기능의 발전을 인정함에 감사를 표현함. 향후 몇 년간 평가가 필요한 분야와 독립성 및 체계 측면에서 제기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제안을 참고할 것임을 밝힘. 평가 사무소는 사무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책임 부서로, 독립성은 철저히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재정 환경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 지정 등의 기능을 포함하여 평가 사무소의 현재 HR 계획이 완전히 역량을 갖추었음을 언급함. 경영진의 대응을 활용하고, 경영진의 대응을 모니터링하는 대시보드를 구축하는 작업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평가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과 이미 경영진의 대응과 권고사항 중 일부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힘.
- ♦ 이사회는 보고서를 확인하고, PBAC에서 제안한 개정된 2025년 WHO 평가 정책을 이의 없이 승인하기로 결정됨(결정안이 채택됨).

의제 6.2 거버넌스 개혁

- ♦ 위원회는 사무국의 거버넌스 개혁 의지를 환영하며, 특히 가용 자원을 고려하여 목적과 전략적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결의안 및 결정안 관리에 있어 운영 기구의 역할 확대를 지지함.
- ♦ 위원회는 이사회에게 위 문서에 포함된 보고서를 참고할 것을 권고하고, 또한 결정안 EB156(1) 2025에 따라 2026년 1월 집행이사회 158차 회의에 앞서 (1) 제출 주기에 대한 결의안 및/또는 결정의 통지 및 제출 일정을 업데이트하고, 회원국을 위한 체크리스트 및 템플릿 사용을 지속할 것을 제안하며, 같은 주기에 보건 총회를 위한 결의안 및/또는 결정 초안을 준비할 것, (2) 미래 관리 기구 의제에 항목을 포함하기 위한 권한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하여 누가, 어떻게 통합, 간격 조정 또는 폐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을 개발할 것.

(3) 회원국 주도 거버넌스 개혁의 일환으로 회원국이 새로운 결의안 및 결정에 대한 제안을 검토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개발할 것, (4) 관리 기구에서 심의하기 전에 결의안 및 결정에 비용을 청구하는 관행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음.

- ◆ 의장은 PBAC 의장의 보고에 감사하며, 사무국 이행 계획을 통해 운영 기구 개혁과 회원국 주도의 거버넌스 개혁 프로세스 구축하여 업무 방식 개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언급함. 또한 이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결의안 초안 및 결정 제안을 위한 의제 관리 절차, 운영 기구의 업무 방식과 같은 과제에 대한 잠재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하고, 사무총장이 1월과 2월 회의에 앞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공개하여야 회원국들이 해당 자료를 검토하고 2월에 매우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음을 제공할 강조함.
- ◆ 회원국들은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감사를 표함. 일부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언급하며 WHO 사무국의 활동에 지지를 표현함. 의제 항목 추가 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중요도에 따른 항목 분류(불가리아), 옴니버스 의제 항목 사용, 활성 위임사항의 정기적인 검토, 그리고 결의안 제출에 대한 구속력 있는 기한(스위스) 적시 문서 제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번역 도구 및 협업 플랫폼 사용을 지지함(한국).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 그룹을 대표하여 결의안 초안 작성을 위한 도구 및 의사소통 개선을 권고하고 위임사항의 예비 검토를 지지하고, 새로운 결의안 및 결정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기준 목록을 작성할 것을 권고하였음.
-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인민 공화국을 공격한 것은 근거 없는 군사적 긴장 고조이며, 특히 의료 시설을 포함한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이 모스크바의 대응의 원인이 되었다며 모든 비난을 거부함. 특수 군사 작전은 유엔 현장 51조에 명시된 자위권에 기반한 것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사실을 시의적절하게 통보받았다고 주장함. 러시아 키이우에서 발생한 임시 테러 공격이라는 특수 군사 작전 구역 밖에서 발생한 이번 공격은 미국이 시작한 러시아-우크라이나 협상 과정을 저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언급함.
- ◆ 의장은 절차 규칙에 따라 1분의 답변 시간을 요청하였음을 밝힘. 이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대표단이 이 플랫폼을 이용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정당화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이 전쟁으로 인해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많은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사망하고 우크라이나의 병원, 구급차, 의료 시설이 파괴되었음을 호소하며 이 상황이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 의장은 그 외 발언을 요청한 회원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오전에 세션이 다시 시작될 것을 알림.

⑤	제157차 집행이사회 참석 및 모니터링
일 시	05.29(목) 09:30~15:00
장 소	WHO 본부
참석자	회원국 대표단, 박현지 연구원

의제 6.2 거버넌스 개혁(이어서)

- ◆ 의장은 어제 오후까지 발언권을 요청하였던 회원국들의 명단을 확보해 두었으며, EB 회원국의 발언 이후에

EB 비회원국 발언이 시작됨을 설명함.

- ◆ 거버넌스 개혁과 절차에 대해 언급한 회원국들은 회원국들의 노력을 통해 이론 진전을 칭찬하며, 위임 관리 강화, 결의 규율 강화, 그리고 기한 및 투명성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이집트, 일본), 결의 규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포용적 메커니즘 구축, 그리고 투명성 강화 및 협상 간소화를 위한 디지털 도구 활용(이집트, 일본, 북한)과 주제별 회의 및 중재 토론을 통해 포용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회의 시간을 연장하는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힘(이집트). 한편 의장의 재량적 권한을 환영하며, 업무 흐름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무국의 결의 및 결정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지함(파나마). 회원국 주도의 거버넌스 개혁과 예측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체계적 통제 시스템 구축을 지지하며, 회원국들이 거버넌스 개혁 과정에 참여하고 최근 EB 의장단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촉구함(호주).
- ◆ 예산과 관련하여 발언한 회원국들은 원가 계산 절차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 필요성(북한, 중국)과 개발도상국 직원들의 대표성과 발언권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함(북한). 2027-2028년 프로그램 예산의 우선순위 설정 과정에 DGS 제안 관련 결의안을 포함하는 것을 지지함(중국, 캐나다). 예산 위기를 해결하고 WHO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함(코스타리카).
- ◆ 결의안 및 의제 관련하여 언급한 회원국들은 이사회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최적화하고, 세션을 간소화하고 의제 규율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지지할 필요성을 강조함(독일). 리더십, 규율, 그리고 합의된 기준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집중적인 의제와 규율 있는 결의안 제출을 장려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지지함(짐바브웨). 한편 지역 조정관과 지역 사무소가 전략 문서 초안 및 실행 계획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후, 이를 이사회(EB) 또는 WHA로 이송할 것을 제안(슬로바키아)하거나 원국들이 논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롤링 의제(rolling agenda) 부활을 요청한 의견도 있음(캐나다). 한편 WHO 이사회의 효과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결의안 및 결정문 초안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그 적절성과 비용 효율성을 평가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으며(일본) 집행이사회 의장이 모든 세션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요약하여 발표할 것을 촉구하고,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제2차 집행이사회 회의 시기를 재검토할 것을 제안함(독일). 결의안 및 의제 수를 검토하는 제안하거나(쿠바, 프랑스) WHO 언어 간 평등을 보장하고 참여 장벽을 피하기 위해 다국어 사용을 지지한다고 밝힘(쿠바).
- ◆ 결의안 등 문서 제출의 지연과 관련하여 발언한 회원국들은 재정 지원이 어려울 수 있는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과도기적 절차를 지지하며, 절차 이행을 장려(프랑스)하고 EB 의장이 문서 제출이 지연된 의제 항목의 경우 합리적인 방식으로 연기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촉구(캐나다)할 것과 적시 문서화를 위한 역량 강화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함(인도, 세네갈), 문서 제출이 늦어진 의제 항목에 대해서는 집행이사회 의장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안전을 연기하고, 결의안 작성을 위한 템플릿, 체크리스트, 타임라인 등을 활용할 것을 지지함(노르웨이, 인도, 영국, 에티오피아).
- ◆ 의장은 회원국들이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고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 대해 정리하여 언급함. 의장으로서 현재 조직이 직면한 재정 문제를 고려할 때 이러한 거버넌스 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1월에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더욱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힘. 조직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거버넌스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 해결책 모색이 바람직하다

고 언급함. 회원국들은 의견은 세 범주로 나뉘며, 첫째로 강력한 지지를 받은 제안에는 의장이 안건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비용 산정 정보의 조기 제공, 제안 절차 초기에 비공식 협의 실시 등이 포함됨. 둘째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는 다국어주의 강화, 문서 일정의 명확화, 결의안 수 제한 등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있었음. 셋째로는 집행이사회 임기 연장 등 일부 제안이 넓은 지지를 받지 못했으며, 이러한 제안은 추후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함. 보고 요건 일몰제 도입과 지역적 관점 반영 등은 보고의 효율성과 절차적 균형을 높이는 방안으로 언급되었음. 끝으로, 이러한 사항들은 회원국 주도의 논의를 통해 내년 초 열릴 집행이사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임을 강조함.

- ◆ 보고관은 5.27일자로 종료된 WHA78에서 채택된 내용은 총회가 끝난 직후 법적 효력이 발효되었으며, 내용에 대해 설명함.
- ◆ 의장의 요약 이후 일본은 사무총장에 대한 협의 처리에 관한 새로운 규칙에 대해 질문하며, 새로운 규칙이 차기 사무총장부터 적용될지, 아니면 현직 사무총장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음. 집행이사회에 향후 계약에 관련 문서 A78/5에 언급된 절차를 포함하도록 결정했는데, 'future contract'이 향후 신규 계약인 것인지, 개정 계약에 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설명을 요청함.
- ◆ 일본의 질문에 대해 보고관은 WHA78에서 채택된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이는 5.27일자로 총회 종료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알림. 질문한 내용은 이행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 과정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시행해야 할 조치들이 매우 명확하였고 이는 총회에서 내린 결정문 2항에 명시되어 있음을 언급함. 결정문의 세가지 중요 사항으로는 첫째, 외부 조사 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 둘째, 내부 규칙, 절차,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하며, 사무국은 이를 작성하고 집행이사회에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데, 이는 내년 초 집행이사회에서 진행될 예정임. 질문한 내용과 같이 집행이사회에서 이 내용을 향후 계약, 특히 이사 총재에게 위임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하는 추가 문단이 있음. 현재 계약이 명시적으로 참조되도록 수정될 것이라는 내용은 없음. 그렇지만, 계약 수정 없이도 진행될 수 있는 요소들이 현 사무총장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명시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함.
- ◆ 의장은 이에 대해 WHO 사무총장의 'future contract'와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새 계약서에 미래 사무총장인지 현 사무총장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인 측면에서 미래 사무총장에게만 적용되는지 현 사무총장에게만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확인하였음. 현 주제와 다른 내용으로, 일본 및 법률 자문과 관련하여 특정 사안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제안함.
- ◆ 의장은 추가 발언 요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의 없이 EB156/5, EB156/6, EB156/7 보고서를 확인함.

의제 6.5 집행이사회 이사회의 결원 충원

- ◆ 의장은 프로그램 예산 및 행정 위원회, 보건 비상사태 예방, 대비 및 대응 상임위원회, 재단 위원회 및 선정 위원회의 현재 위원 구성 및 공식 현황을 기술한 문서 EB 157/11를 언급하며, 문서에는 제79차 세계보건총회에 이사회 대표를 임명하고, 해당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임명에 대한 제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함. 이사

회에 각 위원회를 검토할 것을 요청함.

- ◆ 프로그램 예산, 관리 위원회 전체 위원 14명 중 공석이 7개에 대해 이사회는 EB 157/11 Add.1 2항에 명시된 제안에 만장일치로 동의함.
- ◆ 공석이 2개 있는 보건 비상 예방,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상임위원회에 대해 이사회는 문서 EB 157/11 Add.1 3항에 명시된 공석 충원 제안에 만장일치로 동의함.
- ◆ 공석이 2개인 재단 위원회와 선정 위원회에 대해 이사회는 문서 EB 157/11 Add.1에 명시된 공석 충원 제안에 만장일치로 동의함.
- ◆ 의장은 제79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의장과 상위 3명의 부의장이 이사회를 대표할 것을 제안하며 상위 3명의 부의장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부의장 또는 보고자에게 이사회를 대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제안에 이사회는 이 제안에 만장일치로 동의함.

의제 6.3 지역 사무처장의 지명 및 임명 절차(결정 EB154(14) (2024)) -EB157/8

- ◆ 회원국은 보고서와 모범사례에 대해 사무총장과 사무국의 감사를 표하고, 사무총장이 지명 과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개선한 것을 높게 평가하고, 책임성 강화 노력을 지지함.
- ◆ 아프리카 지역은 2024년 8월 선거와 특별 회기 동안 여러 조치를 시행하여 신임 지역 이사 지명을 이끌었음을 강조함. 사무국이 개혁을 지속할 것을 촉구하고 지역 이사 선정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안함(카메룬).
- ◆ 지역 이사 임명에 있어 지역 위원회의 자율성을 지지하지만(일본, 파나마), 평가단이 지역 위원회의 판단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하며 WHO 헌장 제52조에 따라 지역 위원회와 집행이사회 간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추가로 고려할 것을 제안함(일본). 호주는 지역 이사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참여를 강화한 가상 후보자 포럼 경험을 공유하며, 권고안은 WHO 내 다른 선거 절차에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호주는 각 지역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절차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의 중요성을 강조함(호주, 스페인, 레바논). 또한 지역 위원회의 현행 관행 및 절차 검토 결과를 집행 이사회 업무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며 거버넌스 개혁과 관련된 집행 이사회의 중재 협의에서 이 안건을 논의할 것을 제안함(네팔).
- ◆ 보고관은 네팔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함. 첫째, 초안 결정에서 각 지역 위원회가 지역 이사 지명 절차를 검토하도록 요청한 조항에 대해, 이는 각 지역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투명성, 책임성,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자율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라는 의미임을 설명함. 이러한 검토 결과는 반드시 집행 이사회에 회부되는 것은 아니며, 각 지역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여부와 방식에 대해 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각 지역은 조치 이행을 위한 지침 문서를 바탕으로 향후 회의에서 논의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게 될 예정이며, 이는 빠르면 올가을 회의부터 적용될 수 있음. 둘째, WHO 헌장 제52조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헌장은 집행이사회가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 이사를 임명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합의 불발 시의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설명함. 이론적으로 집행이사회는 특정 지명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럴 경

우 집행이사회는 그 상황에 맞는 대응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함.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집행이사회와 지역위원회 간에 추가 협의나 특별 회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자원과 일정 조정이 요구될 수 있음을 언급함.

- ◆ 의장은 추가 발언 요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의 없이 결정을 채택함.

의제 6.4 호스팅된 파트너십

- ◆ 의장은 이사회가 보고서를 참조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의견 제시를 요청함. 집행이사회 회원국의 질의응답은 없었음. 회원국들은 보고서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유럽 보건 시스템 및 정책 관측소(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의 기여를 강조함.
- ◆ 브라질은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핵심 그룹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Unit 8의 설립국으로서의 역할을 언급함. Unit 8은 매년 약 3억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적인 의료 기술 접근성을 향상시킨 인상적인 투자 수익률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언급함.
- ◆ 토고는 WHO 주최 파트너십 정기 검토의 주요 결론 및 권고 사항과 관련 주요 진전 사항을 준수하며, 주최 파트너십이 WHO의 야심찬 목표 달성을 위한 의료 결과 개선 및 중재 활동 조율에 기여한 점을 인정함.
- ◆ 중국은 EB130의 결정을 언급하며, 현재 문서에 필요한 세부 정보가 부족하므로 향후 보고서에서 관련 정보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사무국에 요청함.
- ◆ 짐바브웨는 WHO 아프리카 지역 47개 회원국을 대표하여 성명을 발표함. 보고서에 명시된 주최 및 보고 방식을 환영하며,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아프리카 지역은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특히 백신 접근성 확대, 모자 보건 개선, 질병 감시 및 대응 강화 측면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음을 언급함. 또한, 회원국과의 협력 강화, 혁신적인 자원 동원 모색, 그리고 더욱 상세한 영향 보고서 제공을 제안함.
- ◆ 레바논은 보건 정책 및 시스템 연구 연합의 활동에 대해 논평함. 2024년에 출범한 연합의 새로운 전략을 강조하며, 1차 보건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기후 변화, 비전염성 질환, 보건 비상사태 등 주요 분야에서 활동 확대, 국가별 우선순위 참여, 그리고 파트너십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밝힘. 합의 성과로는 WHO의 사명에 부합하고, 보건 형평성과 기후 회복력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영향을 미치며, 분쟁 지역에서 보건 비상사태 거버넌스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활동을 확대하는 것을 언급함. 또한, 비전염성 질환 관리와 건강 시스템 강화를 위한 연합의 이니셔티브를 칭찬하며, 투자에 대한 인상적인 수익과 혁신적인 변화에 대한 헌신을 강조함.
- ◆ 사무국은 중국이 요청한 내용에 대해 WHO 사무국에 대한 전체 비용 회수를 보장하는 일반 주최 조항이 잘 준수되고 있으며, 그 자체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지만 향후 보고서에서 추가적인 재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덧붙임.
- ◆ 의장은 추가 발언 요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의 없이 보고서를 확인함.

의제 6.7 재무 규정 및 재무 규칙 개정

- ♦ 의장은 해당 의제의 보고서가 EB157/12에 포함되어 있으며, PBAC 제42차 회의에서도 논의되었음을 밝힘. 이사회가 보고서를 참고하고 문서에 포함된 결의안 초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함.
- ♦ 짐바브웨는 재정 규정 준수 강화 및 지출 관리 개선 개정안에 동의하는 WHO 아프리카 지역 47개 회원국을 대표하여 성명을 발표함. 자발적 기여금 미준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1월 1일 연례 평가를 도입하는 재정 규칙 1044 개정안은 특히 IPSA 47과 부합하며, 재정 관리 관행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함을 언급하며 이러한 개정안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사무총장 보고서에 감사를 표함. 아프리카 지역은 재정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러한 개정안을 채택함으로써 회원국들은 재정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투명성을 보장하며 책임성을 증진할 수 있는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다른 지역들과의 협력을 기대함.
- ♦ 의장은 추가 발언 요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사회는 문서에 포함된 결의안 초안을 이의 없이 채택함.

의제 7.2 WHO 직원 협회 대표의 성명서

- ♦ 의장은 이 성명이 문서 EB157/INF./1의 24항, 1번에 포함되어 있으며, PBAC 제42차 회의에서도 논의되었음을 밝힘. 동일 문서의 24항부터 28항까지에 포함된 PBAC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를 요청하며, WHO 직원 협회 회장이 성명을 발표하도록 요청함.
- ♦ WHO 직원 협회 회장인 Mrs. Catherine kirori Cuni는 WHO, PAHO, UNAIDS, 이라크 직원 협회를 대표하여 성명을 발표함. 이 성명은 WHO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 위기와 예측 가능하고 충분하며 지속 가능한 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회원국의 재정 분담금 감축 또는 철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며, 필요와 가용 자원 간의 격차를 강조함.
- ♦ 보건에서 군사 및 안보 지출로의 세계 자원 이동에 대해서는 보건 안보의 중요성과 공중 보건의 중심 기준점으로서 WHO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점. 회원국이 WHO를 보호하고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며, 혁신적인 기금 조달 모델이 요구될 것임을 언급함. WHO 직원 감축에 앞서 사무총장이 WHO의 구조를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 직원 참여 및 투명성에 대해서 경영진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직원 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함. 불필요한 불안감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과 시의적절하게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과 우선순위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직원들과의 성과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차장급을 11명에서 5명으로 감축한 것은 고위 경영진의 효율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함.
- ♦ 임시 계약 및 직원 복지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핵심 기능의 임시 계약 의존도에 대한 우려를 언급함. 정책의 공정하고 일관된 적용과 적절한 계약 양식의 필요성을 강조함. 직원들의 정신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직원 Q&A 플랫폼 및 전 직원 뉴스레터 출시를 포함한 HR 커뮤니케이션 개선에 감사를 표함.

- ◆ 지속적인 지원과 투명성 추구하고 관련하여 WHO의 사명에 대한 직원들의 헌신을 재확인하고 회원국들의 지원을 촉구함. 78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최근 내려진 결정, 특히 분담금 및 공약 증액을 인정하고, WHO 팬데믹 합의 채택과 2026-2027년 기본 프로그램 예산 승인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힘. 마지막으로 인력 배치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 회원국들은 WHO 직원 협회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경영진이 직원 협회와 협력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함.
- ◆ 리소토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표하여 경영진과 직원 협회 간의 더욱 강력한 협력을 촉구함. 의사결정에서의 포용성과 구조조정 노력의 투명성, 고용 안정성과 국제 기준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회원국들이 WHO에 대한 지속 가능한 기금 지원을 확보할 것을 촉구함.
- ◆ 노르웨이는 직원 협회가 최근 몇 달 동안 비직원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계약 유형에 관계없이 고도로 숙련된 직원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
- ◆ 토고는 아프리카 그룹의 성명에 동의하며, 전략적 우선순위, 투명성, 그리고 비용 절감 조치에 대한 직원들의 주요 우려 사항을 언급함. 직원 협회의 권고 사항이 신속하게 이행될 것을 촉구하고 직원과 사무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 구축 및 현 상황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함.
- ◆ 일본은 직원 감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촉구함. 공정한 국제 내부 사법 제도를 유지하고 WHO 혜택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 심리적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함. 일본은 WHO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에 기여할 것을 약속함.
- ◆ 스위스는 구조조정 및 인력 배치 영향에 대한 정보를 조직 전체에서 포괄적으로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 체계적인 인재 관리와 미래 리더십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함. 또한 비용 절감 조치의 예상 재정적 이점에 대한 구체적인 세분화된 데이터를 요구함.
- ◆ 팔레스타인은 WHO의 정신 건강 증진 노력과 복잡한 인도주의적 상황에서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특히 요르단강 서안 지구, 가자 지구, 동예루살렘에서 WHO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경의를 표함. 전 세계에서 순직한 직원의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어려운 시기에 직원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함.
- ◆ 독일은 투명한 소통과 직원 협회의 논의 참여를 촉구하고, 계약 유형에 관계없이 고도로 숙련된 직원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직원과 가족을 고려하여 조치를 취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함.
- ◆ 영국은 특히 투명한 소통을 위해 직원들의 요청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펄스 설문조사, 뉴스레터,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한 경영진의 노력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직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함.
- ◆ 인사 및 인재 관리 부문 책임자 Mr. Patrick Nicolio는 조직 책임자는 직원 협회와 직원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에 감사를 표하며, 조직 개편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함. 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첫 번째 펄스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지원 체계를 조정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하지만 이러한 설문은 직접 소통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조직 차원에서 개방적이고 정기적인 대화를 지속할 것임을 강조함. 또한 우선순위 설정과 관련해 부총

장들에게 조만간 지침이 전달될 예정이며, 이 내용은 직원들과도 공유될 계획임을 언급함. 인력 관리 및 계약 방식 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자금 구조의 제약도 함께 인지하고 있음을 설명함. 직원들의 정신 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 단계로 구성된 체계에 투자하고 있으며, HR 부서와의 정기 회의를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을 보고함. 끝으로, 조직은 직원들과의 소통과 실행 절차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짐함.

- ◆ 사무총장은 직원이 조직의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연설할 기회를 요청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시기의 직원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헤쳐나갈 수 있었고,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에 도달할 수 있었으며 거버넌스 회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모든 직원의 산물임을 강조함. 하지만, 직원과의 협의 과정에 있었던 몇가지 약점들을 인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해결하여 소통을 개선하고,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인 절차를 구축할 것을 약속함. 따라서 정기적인 플랫폼을 통해 보고된 사항들을 해결할 것이며, 투명하고 공정하며 인도적인 절차를 추구할 것임을 밝힘. 또한 계약 유형이나 수준에 관계없이 핵심 임무인 우선순위에 중점을 두고, 우선순위는 핵심 임무를 기반으로 정해질 것이며, 계약 유형의 수준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님을 언급함. 마지막으로 직원 협회에서 지적한 몇 가지 과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언급함.
- ◆ 의장은 더 이상의 의견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논의를 마침.

의제 8 정보 제공 사항: 전문가 위원회 및 연구 그룹 회의에 대한 보고

- ◆ 의장은 생물표준화 전문가 위원회의 제80차 보고서를 소개하며, 2024년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하이드리드 회의와 공중보건의 중요성 및 WHO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권고안에 대해 설명함. 이 보고서는 WHO 기술 보고서 시리즈 번호 1063/58에 수록되어 있으며, 권고안은 문서 EB 157/14의 1~6항에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함. 또한 2024년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약물 의존성 전문가 위원회의 제47차 보고서를 언급하며, 이 보고서에는 WHO 기술 보고서 시리즈 번호 1057에 수록된 문서 EB 157/14의 21~25항에 권고안이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함. 2024년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WHO 담배 규제 연구 그룹의 제12차 회의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이 보고서에는 WHO 기술 보고서 시리즈 번호 1066에 수록된 문서 EB 157/14의 23~25항에 권고안이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함.
- ◆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문가 위원회 회의 보고서에 대한 사무국의 감사를 표하며, 생물학적 표준화, 약물 표준화, 담배 제품 규제에서 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동물 실험 감소를 위한 권고안을 지지하고 윤리적 절차 이행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을 밝히며, 인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향정신성 물질 표준화와 담배 제품 규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권고안을 수립하고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는 WHO의 역할을 높이 평가함.
- ◆ 토고는 WHO 아프리카 지역 47개 회원국을 대표하여 사무국의 보고서와 권고안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생물학적 제품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고 제조 및 규제 승인을 위한 기술 지원을 보장하는 생물표준화위원회의 지원에 감사하며, 또한 의약품 규격 위원회와 담배 제품 규제 연구 그룹의 지원을 환영함. 사무국이 전

문가 위원회의 주요 권고안을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청함.

- ◆ 스페인은 의약품 임상시험에서 우수 임상시험관리기준(GCP)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시험 대상자의 권리,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함. 국제적으로 동질적인 수준의 윤리적, 과학적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조화로운 기준의 필요성을 지지하며, 제안된 텍스트와 더욱 강화된 조화를 이루기 위한 WHO 지침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밝힘. 또한, 담배 및 관련 제품 규제의 주요 장애물로 담배 업계의 강력한 간섭을 지적함. 지속적인 과학적 증거 제시를 촉구하고, 각국 정부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국가 간 기술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함.
- ◆ 의장은 추가 발언 요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EB157/14에 포함된 보고서를 확인함. 이사회를 대표하여 회의에 참석한 대표단에게 감사를 전하며, 사무총장에게 필요의 따라 회원국들의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함.

의제 9 향후 집행이사회 및 보건 총회 일정

- ◆ 의장은 차기 집행이사회 회의, 프로그램 예산 및 행정위원회, 보건 상임위원회, 세계보건총회 일정과 관련된 두 건의 초안 결정이 포함된 문서 EB157/15를 설명함. 이 문서에는 또한 이러한 회의 방식에 대한 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오프라인 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상 회의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림.
- ◆ 사무국장은 제158차 집행이사회 임시 의제 초안 작성 절차의 다음 단계를 설명함. 사무총장이 임시 의제 초안을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이전 회의 종료 후 4주 이내에 회원들에게 배포해야 함. 의제에 포함될 모든 제안서는 임시 의제 초안 회람 후 12주 이내 또는 회기 시작 10주 전까지(둘 중 더 빠른 날짜 기준)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임시 의제는 사무총장이 임시 의제 초안 및 접수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이사회 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함. 주석이 첨부된 임시 의제는 모든 권고 사항과 함께 소집 통지와 함께 발송됨.
- ◆ 의장은 이사회에 제158차 회의를 2026년 2월 2일 월요일 제네바 WHO 본부에서 소집하고, 늦어도 2026년 2월 7일 토요일까지 마감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질의함. 이사회는 이의 없이 동의하며, 위 내용을 이행할 것을 결정함. 또한 집행이사회 프로그램 예산 및 행정위원회가 2026년 1월 28일(수)부터 30일(금)까지 WHO 본부에서 제43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이사회가 동의하는지 질의함. 이사회는 이의 없이 동의하며, 위 내용을 이행할 것을 결정함.

의제 10. 집행이사회 폐회

- ◆ 의장은 Mr. Blair 사무국장의 회의 진행에 감사를 표하며, 내년에도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모든 이사회 구성원과 회원국의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헌신에 감사함. 이전 회의에서 퇴임하는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사회 임기가 끝난 국가를 다음과 같이 나열함(브라질, 캐나다, 중국, 에티오피아, 몰디브,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공화국, 모로코, 세네갈, 슬로바키아, 미국, 예멘). 마지막으로 Janabi 교수의 WHO 가족 합류를 환영하며, 신임 의장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 사무총장은 회의 기간 동안 전문적이고 건설적인 참여를 보여준 집행이사회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집행이사회 프로그램 예산, 관리 위원회(PBAC)와 보건 비상 예방,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상임위원회(SHEPAPR) 위원들에게 임원 선출을 위한 간략 회의가 곧 개최될 예정임(당일)을 상기시며 각 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논의하는 데 있어 이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함. 회의 관련 정보가 모든 PBAC 및 SHEPAPR 위원들에게 이메일로 배포되었다고 언급하고, 논의될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함. 집행이사회 구성원들의 기여와 전문성에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함.
- ♦ 집행이사회 제157차 회의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며 폐회를 선언함.

⑥	귀국 및 도착
일 시	05.30(금) 17:30(스위스)~05.31(토) 16:30(한국)
장 소	스위스(제네바) 제네바 공항 → 한국(인천) 인천국제공항
참석자	박현지 연구원
귀국 및 한국 도착	

①

제78차 세계보건총회



②

제157차 집행이사회

